

재앙이 그쳤더라 (사무엘하 24:18-25)

대부분 개인 응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필요하니까. 우리 생각이 세계 복음화와 그리스도에게 잡히면 인생이 달라진다. 응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여기에 맞추어지는 것이다. 늘 그 생각에 잡혀 있으면 끝이 없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인생이 자꾸 커져야 한다. 응답이 더 많이 오고 깊어져야 한다. 결국 작품되어야 한다. 그런데 생각이 자꾸 나의 무엇에 잡혀 있으면 진도가 안 나간다. 빌립보서 3:1절에 사도바울이 같은 말을 계속 하는 것이 수고로움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 같은 말이 너희에게 안전하다는 것이다. 무슨 말을 반복하겠는가? 복음이다. 계속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수고하는 것이 없다. 계속 하는 말이니깐, 그런데 너희는 안전하다는 것이다. 오늘 우리도 똑같은 일을 해야 한다. 이미 나와 있는 약속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미 왔던 것인데 그것이 역사하게 된다. 놀랍다. 기록되었는 것에 불과한데 오늘 새로 잡으면 새로 역사하게 된다. 하나님이 주신 답은 그리스도이다. 그의 삼직이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다. 간단한 말이다. 이것 안하기 때문에 말이 많은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세가지 약속이 복음이다. 왕, 선지자, 제사장이자.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다른 것은 아무리 믿어도 구원 없다. 모든 힘은 여기서 다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힘은 다른데는 없다. 태양도 이 세가지 약속을 위하여 아침에 뜬 것이다. 이 세가지 약속 안에 응답이 있다. 능력과 권세, 이 세가지 약속 안에만 있다. 이 세가지 약속을 세상에 전달하는 것이 전도이고, 영접은 이 세가지 약속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가지 약속이다. 성경 전체인데, 이해를 빨리 할수 있도록 세가지로 요약해 해 봤다. 지난주에 본대로 다윗은 이것을 누리다가 눈이 열렸다. 골리앗을 보는 눈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니 응답이 달라졌다. 그래서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를 건졌다. 이 누림에서 24 나온다. 3직이다. 이 누림에서 393 나온다. 3직도 없는데 393이 되겠는가? 하나님이 왜 24를 주겠는가? 이 삼직을 네 인생에서 누리라는 것이다. 이 세가지 약속을 현장의 모든 사람에게 전달해라. 깊은 393 기도를 통하여 이 세가지 약속을 현장화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인간과 세상을 저주에서 건지는 것이다. 답은 이것 뿐이다. 오늘도 이 세가지 약속을 깊이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24로 가는 것이다. 진짜 누리면 진짜 인생이 된다. 깊이 누리면 깊은 응답이 오는 것이다. 기준은 이것이다. 3직. 기준은 복음이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나님은 복음대로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한다는 것이다.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을 세가지로 정리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삼직이다. 그대로 하신다. 다시 한번 눈 뜨고 각인 되는 축복이 있기 바란다.

1. 재앙이 그쳤더라

오늘 이야기는 사무엘하 마지막 이야기이다. 다윗의 이야기가 끝나는 장면이다. 열왕기상에도 가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있기는 있다. 그러나 사실은 솔로몬 왕을 말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늙어서 부름 받기 전의 다윗을 이야기 했다. 열왕기상은 솔로몬 이후의 왕들 이야기이다.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가 삼하 24에서 끝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끝나는 이야기가 단을 쌓아서 이스라엘의 재앙을 막는 이야기이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 22장에서 끝이 난다. 창세기 22장은 이삭 대신 죽은 숫양 이야기이다.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도 오랫동안 살았다. 그래서 다시 장가를 들어서 아들을 여섯명 더 낳았다. 오래 살아 있었는데, 아브라함 이야기가 더 없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

가? 내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숫양으로 끝이라는 것이다. 이 숫양은 그리스도이다. 대신 죽은 숫양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내 아들을 대신 보내겠다는 예언이고 약속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했다는 것이다. 야곱에 대한 이야기도 창 35장에서 끝난다. 창 35장은 야곱이 인본주의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야곱의 이야기도 끝났다. 야곱은 그 이후에도 오랫동안 살아 있었다.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다. 애굽에서 살다가 죽었다. 그런데 더 이상 야곱의 이야기가 성경에 없다. 어쩌다 한 문장 나오는 것은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다. 요셉 이야기 하다가 필요해서 나온 것이다. 야곱이 주인공이 아니다. 오늘 다윗 이야기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다윗을 통하여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단이라는 것이다. 인간의 재앙을 막는 약속의 피제사, 이것이 다윗을 통해 너희에게 하고 싶은 말이라는 것이다. 2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땅에 진노했다고 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심판을 하기 위해서 다윗을 격동시켰다고 하셨다. 그래서 다윗을 격동하여 인구조사를 하게 한 것이다. 그러니 인구조사는 지금으로보면 아주 중요한 정책결정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 때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 불신앙의 행위였다. 그래서 2절에 요압장군이 다윗에게 가서 말했다. 그러나 다윗은 이미 하나님에게 격동되었기 때문에 하라고 우겼다. 그래서 다 끝났다. 그런데 10절에 인구조사가 끝나고 나서 마음에 자책을 하면서 회개한다. 내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하면서 용서를 구했다. 그래서 13절에 선지자 갓을 다윗에게 보내서 내가 벌칙 세 개중에 선택하라고 했다. 하나는 7년간 기근이 들거나, 다윗이 3개월간 대적에게 쫓겨가는 것, 마지막은 3년간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드는 것이다. 14절에 보면 다윗이 선택 안하고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겠다고 하였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라고 갓에게 말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염병을 내리셔서 이스라엘에 7만명이 죽었다. 하나님이 선택했으니 다윗과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 전부를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을 벌을 주기 위해서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하도록 격동시킨 것이다. 다윗은 도구였다. 그러나 이 저주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항상 축복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새로운 축복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 다시 한번 언약을 보여주신 것이다. 너희에게는 이것이 답인데 왜 다른 것을 하냐는 것이다. 이 제사를 다윗이 드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 다음부터는 옆길로 가지 말라는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이 언약의 피제사, 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재앙이 그쳤다. 이것이 이 메시지이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선지자 갓을 보냈을 때 딱 장소를 정해줬다.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서 재단을 쌓으라고 정해주셨다. 그래서 거기서 가서 그 타작마당을 사서 제사를 드렸다.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몇가지 있다. 첫째는 이 단은 인간의 재앙을 없앤다는 것이다. 이것이 중요하다. 들어와서 언약되면 우리 인생의 재앙 운명 다 깨진다. 언약으로 잡기 바란다. 그럴려면 이것이 진짜라는 것이 발견되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에게 방법을 주신 것이 바로 기도이다. 기도를 하라. 하나님 나도 이것이 보이게 해달라고. 될 때까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서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고 너를 저주에서 건질것이라고 하였다. 이 약속이 내 인생중에 계속 나타나는 비밀이 창세기 3장 21절이다. 희생제사. 방법은 하나 뿐이다. 다른 것은 없다. 그리고 바뀌지도 않는다. 항상 이것으로 영원히 무조건 끝이다. 이것이 주가 아니고 다른 것 한다면 처음부터 종교이다. 내 마음에 이것보다도 다른 것에 더 많이 가 있으면 종교이다. 내가 이 언약이 아니라 전도로만 풀려고 하면 전도도 종교되고 헌금도

종교된다. 전도가 얼마나 귀하고 헌금이 얼마나 귀한가? 그런데 그것보다 앞서면 하나님이 절대 용서안하고 양보 안한다. 열심히 했는데 인생 망한다. 그런데 이게 진짜면 가만히 있어도 계속 역사 일어난다. 바로 여기서 시작해야 하고 매일 이것을 확인해야 한다. 안그러면 자꾸 사단에게 속는다. 이것이 이미 그리스도 보혈로 완성되어 있다. 다른 것 필요 없다. 다른 것을 원하는 사람은 속는 것이다. 이 깨닫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다른 것을 찾으면 망한다. 고백하기만 하면 된다. 언제든지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죽음심으로 완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을 항상 고백하고 언약으로 잡으면 인생 정복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인생에 놀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리고 놀리지 않는 길을 이미 완성해 놓으셨다. 정복해야 한다.

그리고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의 중요한 두 번째 역사적 의미는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곳과 같은 곳이고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이 들어서는 것이다. 이곳에서 오늘 이스라엘의 재앙을 막는 언약의 제사를 드린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 만큼 아브라함과 다윗의 의미가 있다는 것인데, 그 영적인 의미가 시작되는 곳이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의미는 선지자 갓을 정해서 여기라고 정해줬다. 다른데서 말고, 오래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그 자리, 거기. 그래서 숫양을 대신 죽이셨던 그 자리, 의미가 있다. 그래서 18절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으라고 갓이 전하였다.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왕 다윗이 제사를 드린 것이다. 그리고 그 곳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숫양을 드린 곳이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정해져있다. 전세계에서 딱 한곳 뿐이었다. 그곳이 성전이였다. 성전 외에 다른 곳에서도, 산위에서도 제사드리는 사람들도 그 당시에 있었다. 많은 왕들이 다 용인해줬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따 깨버렸다. 요시아도 산당을 다 없애버렸다. 왜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너는 여기서 내게 제사를 지내라는 것은 이곳이 지구상에 내 주소라는 말이다. 니가 나를 만나고 싶으면 여기에 와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 장소가 바로 그리스도로 바뀐 것이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말고는 하나님을 만날 장소가 없다.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반드시 영원히 만난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은 불가능이다. 그래서 은혜이다.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이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기 바란다. 눈이 열려서 언약으로 잡는 것이다. 생명으로 언약을 잡으라. 절대 양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 금토일 시대

이 시대의 화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세계 복음화이다. 이 운동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해야 한다. 광야에서 수많은 일이 일어났어도 하나님은 절대 가나안 가는 것 양보 안했다. 마찬가지로 세계복음화도 절대 양보 안하신다. 우리가 포기해야 한다. 그거 말고 다른 것으로 복을 받겠다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 대를 이어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렘넌트 운동 해야 한다. 그리고 시대마다 항상 청소년 문제는 최고의 이슈였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세상은 아직 아무것도 형성되어 있지 않는 청소년을 항상 표적으로 삼는다. 3단체는 이들을 문화운동으로 100년안에 무너뜨리겠다고 했다고 한다. 과연 온 천지 귀신 문화가 판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영적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이유도 모르고 숫자가 오르고 있다. 명상운동 이런것들도 보니까, 대단하게 일어나고 있다. 학교도 만들고 있다. 우울증 환자 걱정하는 것 누구든지 알고, 자살, 살인, 총기 사건 계속 일어난다. 그런데 이게 영적 문제라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것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복음이 없어서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다. 복음을 몰라서 안 들어가는 것이다. 복음 외에는 영안 안 열린다.

귀신 들린 사람 많이 있었다. 그런데 안 보였다. 우리가 렘넌트 운동 강조하는 이유는 렘넌트들이 이런데 빠지면 안된다. 자신의 아이들이 이런데 빠지기 원하는 부모는 없다. 오히려 우리는 이것을 건지는게 목표이다.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금토일 하자, 집중하자는 것이다. 복음이 답이기 때문에 이것을 진짜 애들에게 심어야 한다. 우리 자녀들이 답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답은 자녀들의 인생에 약속대로 그대로 나타난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니까. 이게 복음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일을 빨리 가능하면 자녀들에게 깊이 심어야 한다. 우리 렘넌트들 중에서도 사명자들이 있다. 이 말씀 운동을 하는 사명자들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별로 신경 안쓴다. 그런데 신경을 안써서 될 일이 아니다. 확실히 알아야 한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시간 내고 집중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답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복음이 답인데, 복음이 답이라는 답이 나와야 한다. 세상은 더 말세의 증세가 나타날 것이다. 성경의 예언 그대로 되어질 것이다. 아무도 못 막는다. 그런데 계시록 끝까지 하나님은 계속 답이라고 하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한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어릴 때 들어가는 것이 평생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내가 한국에 가서 어머니 만났는데, 아직도 완전하지가 않으시다. 연세가 90이 넘으셨는데 기억력이 좋으시다. 너무 똑똑하시다. 시골에 경로당에 모여서 할 일이 없으니까 화투를 치는 것이다. 그런데 화투를 치면서 1점에 10원짜리를 하는데, 자기가 제일 계산이 빠르다는 것이다. 그리고 매일 떠나는 것이다. 그렇게 똑똑한 분이 예수 같은 것은 안해도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사도 하면서 복음 전하는데, 내 마음에 항상 부모님 집에 갈 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어머니가 해줬던 반찬이 늘 생각한다. 몇가지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어디가서 먹는 기준을 삼는다. 나만 그런게 아니라 다 그럴 것이다. 그래서 다른 것이 들어오기 전에 빨리 복음을 넣어야 한다. 복음은 말씀이다. 그리고 말씀은 살아 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대로 되어진다. 이것이 언약이다, 내가 죽을 것이라는 말은 너의 노력으로 안된다는 것이다. 네 안에 들어온 것을 내가 너의 인생중에 행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어릴 때 바른 것을 심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바른 것을 심고 답을 심어 놔야 한다.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면 그대로 되어 질 것이다. 사단이 계속 들어와서 다른 것을 심으려고 한다. 빨리 언약의 말씀을 심어놔야 한다. 심은 대로 거둔다. 세상것이 들어가면 세상것 거둔다. 복음 심으면 복음 거둔다. 깊이 심으면 더 깊은 것을 거둔다. 일찍 심으면 더 일찍 거둔다. 답은 복음이다. 이거 아니면 다른 것은 부작용 나온다. 그래서 빨리 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태중에 기도, 태교, 중요성 다 안다. 그리고 우리가 종종 한번씩 보는데 진짜 기도하고 낳은 아이가 다르다. 태교 하면서 기도하면서 낳으면 아이 때문에 고생하는게 아니라 은혜 받는다. 우리 보다 더 영적이기 때문에 아기들이 더 영적인 반응을 보인다. 깜짝깜짝 놀란다. 이런 사실 잊지 말고 금토일 시대에 해당되는 부모들은 기도하면서 준비해야한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이들의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된다. 그 다음은 우리 중직자들의 헌신이 너무 중요하다. 시대적인 중직자 사명이 렘넌트 운동이다. 그러니까 중직자 렘넌트 이런 단어는 항상 같이 간다. 그리고 사역자들의 헌신도 중요하다. 영적인 메시지를 사역자, 교역자들이 담당해야 한다. 우리는 이런 대총 1월달부터 시작하려고 한다. 조직이나 내용을 곧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시대적인 일이고 아주 중요한 일이다. 이런 중요한 일은 그냥 헌신으로 끝나지 않고 축복으로 반드시 바뀐다. 그래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이 오늘 다시 한번 단을 언약으로 잡음으로 역사가 일어나기 바란다. 그래서 이 언약의 단과 세계복음화로 중요한 응답이 나는 하루가 되기 바란다.